together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우수사례집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을 살려
세상으로 나온 신중년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제시 장승포동주민센터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우수사례집

본 우수사례집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보고서(2022년)에 수록된 우수사례의 원고와 같습니다.
우수사례 선정 및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ogether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우수사례집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을 살려 세상으로 나온 신중년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제시 장승포동주민센터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목차

참여자

010 34년 '직장 여행' 마치고 여행사에서 새로운 여정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016 공직 경력 어학 실력 살려 여행스토리텔러로 다시 뛴다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참여자 및 수행기관

022 명불허전 전문능력 모아 사회적경제 성장동력으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8 겨울을 견디고 새봄을 맞듯 희망의 싹 다시 틔우는 신중년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수행기관

034 입주기업 고민 해결사 노무·안전의 '신중년 전문위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040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직접 베테랑을 찾아간 열정으로 빚어낸 마을 숲 그린 가드너
거제시 장승포동주민센터

046 국세청 출신 등 신중년 3총사 세무·회계, 노무, 인사 답답함 해소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052 공교육 빈틈을 메워준 신중년 '촘촘보조교사'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

058 부산 최초 '대체 조리사' 신중년이 나섰다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처

064 작가들의 아트 신중년의 하트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시작된 사업임.

34년 '직장 여행' 마치고
여행사에서 새로운 여정

참여자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사회적경제기업지원단 양기석 위원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다시 대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여행사 마케팅 홍보 지원 업무까지. 양기석 위원의 34년 직장 생활은 다양했다.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영원한 현역이다.

양기석 위원

그에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한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고향 같은 고양에서
활력 재시동

한화그룹, 한국철도공사,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양기석 위원은 34년 간 직장을 옮길 때마다 업무 전문성을 발휘했다. 2022년 마지막 직장이었던 경기도청사 소재지 수원에서 고향인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마을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살펴보던 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만나게 됐다.

“그동안 쌓아온 사회 경험을 살려 제2의 고향과 다름없는 고양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어요. 고양시 공동체 지원활동에도 참여하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동, 고양시 시민학습동아리 ‘나는 강사다’ 모임을 주도하며 활발히 활동했어요. 어느 날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사회적경제기업지원단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6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곧바로 지원서를 접수했죠.”

과연 ‘정년퇴직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장이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고 자신감도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야’라는 작은 희망으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다.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열게 된 것이다.

자연친화 공정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의 사회적경제기업지원단에서 양기석 위원은 마케팅 분야 지원업무다. 그에게 연결된 대상 기업은 고양시 소재 여행사 플래닛스토리였다. 플래닛스토리는 일반여행사와 달리 ‘지역친화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였다. 이곳에서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정상화에 대비한 마케팅홍보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플래닛스토리에서 지역친화 공정관광상품을 개발·판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오염된 여행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지역친화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에 참여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무원으로 34년간 근무하며 쌓은 행정, 기획 역량, 지자체 연계 역량 등을 활용해 고양시뿐만 아니라 연천군 등 DMZ 접경 지자체와 협력했다. 그 결과 연천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경기관광공사 주관 산업관광 우수프로그램 공모, 고양시 온라인마케팅 공모사업, 한국관광공사의 ICT 인력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참여한 사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양기석 위원은 화수분처럼 능력을 발휘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었던 플래닛스토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류 작성은 물론 심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퇴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선한 영향력 실천에도 앞장섰다.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플래닛스토리의 소재지인 고양시 장항2동 마을공동체가 개최한 중남미축제의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중남미문화원과 주한 중남미대사관이 협업한 축제에서 그는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공연단과 마을공동체 참여를 끌어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외에도 그는 사회적경제기업지원단 재능나눔 워크숍, 고양시 평생학습 동아리 특강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취지처럼 지난 10년간 공직에서 갈고 닦은 행정실무 경력과 관계 역량을 바탕으로 1+1=2가 아닌 셋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적 관리와 체계적인 진도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공의 이익이 담긴 성과를 창출했어요.”

그는 새로운 직장 생활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은퇴 이전보다 훨씬 바쁜 생활을 이어갔다. 그에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한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공직 경력 어학 실력 살려
여행스토리텔러로 다시 뛴다

참여자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전영석 부산 시티투어 가이드

30년 넘게 몸담아온 공직에서 떠난 뒤 여행해설사로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 있다. 전영석 가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고비를 넘어 현재 부산 시티투어 가이드로 활동 중이다. 그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얻기 위한 분투 과정과 그에게 새로운 분야의 길을 열어준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영석 부산 시티투어 가이드

50대 스튜어디스 본 뒤 미래 준비

전영석 가이드는 지난 2019년 36년 간 근무했던 부산시 동래구청에서 퇴직한 공직자 출신이다. 이듬해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시험에 합격한 뒤 관광업체나 중국어 통역이 필요한 사업체에 재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렸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은 싸늘했다. 하는 수 없이 영어·중국어 회화학습, 국제무역사, 중국어지도사 자격 공부와 아울러 경비원 교육까지 받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길 손꼽아 기다렸다. 그렇게 2년이 지난 2022년 5월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 부산 시티투어 가이드 모집에 지원해 합격하는 기쁨을 맛봤다.

구청 재직 당시 동래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행정협력 활동을 하던 전영석 가이드는 퇴직 후에도 중국어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 미국을 방문할 때 탑승했던 기내에서 50대로 보이는 중년의 스튜어디스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곧 이런 시대가 온다'라며 미래를 준비했던 그는 그때부터 '길 위의 인생'을 사는 여행해설사를 두 번째 직업으로 갖겠다고 다짐했다.

"옛말에 잘하는 일보다 열심히 하는 일이 좋고, 열심히 하는 일보다, 즐거운 일이 좋다는 말처럼 정말 일이 즐겁습니다. 이 임무가 적성에 잘 맞고 특히 퇴직 후에도 여전히 현역으로서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반평생 넘게 동래구청에서 일했던 그에게 지역 관광명소의 역사·문화에 관해 안내하는 일은 천직이라 여길 정도로 적성에 맞았고 할 때마다 즐거웠다. 그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간 레드, 그린, 오렌지, 블루 등 부산 시티투어 4개 노선 중 1개 노선에 투입돼 가이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 사나이에서 '부산 홍보대사'로

전영석 가이드는 부산 시티투어가 눈으로만 훑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 인생의 시야도 넓어지는 지식여행이 되길 바란다. 단지 여행지의 풍경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알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행의 질 역시 달라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평생을 부산에서 보냈지만, 가이드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등잔 밑이 어두웠음을 새삼 느낀 그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공부하며 자신만의 여행 해설을 준비했다. 다시 책을 찾아보고, 강좌를 들으면서 그동안 놓쳤던 부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전영석 가이드는 "시티투어 가이드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사회 경력과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만나다보니 과거 재취업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일도 잊게 됐습니다."라며 코로나19 시절 겪었던 남모를 마음 고생을 회상했다. 이어 그는 "재취업 이후 신체적으로도

전영석 씨는 비즈니스 중국어, 비즈니스 영어에
새롭게 도전해 전문적인 중국 관광통역안내사를 꿈꾸고 있다.

만성질환이던 무릎과 허리 통증이 좋아졌고 체중조절에도 성공했어요. 즐거운 일자리와 건강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베이비부머 세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새 희망

전영석 가이드는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의 퇴직, 자녀의 독립으로 부모 역할을 졸업하며 인생 1막을 마친 베이비부머 세대다. 인생 2막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그는 이제 자신의 건강과 자아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이후 여행분야에서 신중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한 전영석 가이드에게 '부산 시티투어 가이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정은지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신중년생애전환지원팀장은 "전영석 선생님의 경우 공직 경험과 사회 경력을 살려 시티투어 가이드로 인생 2모작을 그 누구보다 진취적으로 개척하신 분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도 부산여행과 어학 공부에 몰두하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전영석 가이드는 이 경험을 살려 비즈니스 중국어, 비즈니스 영어에 새롭게 도전해 전문적인 중국 관광통역안내사를 꿈꾸고 있다.

명불허전 전문능력 모아
사회적경제 성장동력으로

참여자 및 수행기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영국 행정전문위원, 전미향 홍보전문위원,
문흥석 이사장, 최미희 대리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2022년은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해였다. 전국 최초 신중년 전문인력 활용 사회적경제 웹진 발행, 사회적기업 대상 행정컨설팅 사업지원 등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신중년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전국 최초
신중년 전문인력 활용한 웹진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지정 통합지원기관이다. 2021년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취약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올해 웹진 <the:울림>을 창간해 지역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을 홍보했다.

일자리사업팀 최미희 대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과 우수사례를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울산 최초 소상공인·사회적경제 기업전용 웹진 <the:울림>을 발행해 홍보마케팅 및 행정컨설팅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웹진 발행을 위해 기자, 디자이너, 행정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했던 신중년 3명을 신규 선발했다. 기자로 채용된 전미향 홍보전문위원은 1996년부터 울산신문사를 거쳐 매일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중국 한인 매거진 <좋은 아침 상하이> 편집국장을 역임한 전문 편집기자 출신으로 <the:울림> 창간 멤버로 합류했다.

전 위원은 "소싯적 울산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14년간 무역업을 하던 중 후배 기자의 추천으로 면접을 봤어요. 솔직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고 14년 공백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은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이너, 센터 직원들과 힘을 합쳐 매달 웹진을 만들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신중년과 MZ세대가
어울려 만드는 'the:울림'

<the:울림> 홍보팀장이기도 한 전 위원은 매달 편집 기획부터 인터뷰이 섭외, 기획기사 작성, 현장 취재와 사진 촬영까지 일당백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매달 15일 마감일에 맞춰 콘텐츠 제작을 완료한다. 마감의 압박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자 임무에 충실했다.

<the:울림> 창간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내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사 제보는 물론 콘텐츠 기획, 오탈자 수정, 최종 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쳤다. 센터의 20~30대 직원들은 신중년 전문위원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홍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 신중년 전문위원 역시 MZ세대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다.

지난 5월 독자들과 첫 만남을 가진 웹진 <the:울림>은 11월까지 약 67개소의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및 우수사례를 담았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 12건을 비롯해 블로그 게시글이 무려 170여 건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에 큰 역할을 했고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 이미지 향상은 덤이었다.

울산자원순환
사업협동조합
문의 010-8586-5371
태화강종합예술
사회적협동조합
문의 010-3844-4912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
문의 052-269-8034
모비딕
사회적협동조합
문 052-258-8220
의 010-8323-8220
주식회사 두바퀴
문 052-295-5782
의 010-8507-4668
사회적협동조합 반구대암각화
대곡리주민보존사업단
문의 010-4016-8260
주식회사
들메내식품
문의 052-900-8559
사회적협동조합
국제종자중군개발센터
문의 010-7660-7676
주식회사 사금질
문의 010-2718-9463
(주)울토리
문의 010-5351-0931
이음공동체
협동조합
문의 010-2244-7272
사회적협동조합
메이블아트
문의 010-8271-6922
울산희망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문의 052-296-7373
(주)파인건축
아트인라이프(주)
주식회사
이음더하기
문의 052-298-1728
주식회사
쓰리디피플
문의 010-8639-0929
주리라이스
주식회사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문의 052-263-4642
백년숲산악조
사회적협동조합
대나무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
(주)바른콕콕투
(주)꼬유
(주)다림지
주식회사 나눔
주식회사 조은
주식회사 대길산업
주식회사 슬리퍼
주식회사 뿌린
주식회사 그린
주식회사 토해지
울산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주식회사 보보밥맛
(주)그래서
(주)한국
(주)한국도로
(주)한국도로
(주)한국도로

겨울을 견디고 새봄을 맞듯
희망의 싹 다시 틔우는 신중년

참여자 및 수행기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임희·최은경 매니저, 최윤정 팀장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 싱싱한 식재료를 얻는 건강한 느낌. 그동안 자신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수확하는 보람.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일상의 가치. 이런 세 가지의 '도시樂'을 만들어 주는 도시농업에 요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 양주시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중년을 도시농업 매니저로 활용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시농업 매니저들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직업을 갖게 됐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로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면서 수요는 급증했지만 현장에서 관련 지식을 알려주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최윤정 팀장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 센터에서 양성하는 도시농업 전문가가 생각났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 강사로만 활동하던 이들을 2020년 도시농업 매니저로 채용해 프로그램 기획·진행, 도시농업 사업장 관리 및 평가, 각종 행사 지원 등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죠."라면서 "2020년 2명으로 시작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도시농업 매니저 채용 계기와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도시농업 매니저들은 양주시 전역을 발로 뛰면서 도시농업시범장(26개소) 운영, 상자텃밭 보급사업(61개소), 찾아가는 에코 스쿨팜(10개교), 도시농부 육성(160여 명), 꼬마농부학교(6개소)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양주천일홍축제에서 도시농업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양주시 사회복지과와 협업해 관내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추 한 봉투가 바꾼
아이 생활

도시농업 매니저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현장 관련 사업도 다양하고 활발해졌다. IT를 연계한 제어·조정, 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수직정원을 설치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학교 스쿨팜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원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눈에 띄는 사례도 있었다.

"원예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상추 한 봉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다음에 가보니 그 아이가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공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학교 밖 활동을 통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더라고요." 최은경 매니저는 당시 상추 한 봉투가 아이를 바꾼 일화를 약간 흥분된 어조로 들려줬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1년간 상자텃밭에 채소를 심고 함께 키우며 성장과정을 알려줬더니 평소 채소를 먹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서로 먹겠다고 할 만큼 편식이 줄어들기도 했다.

현장의 철저한 서비스로 도시농업 매니저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2020년 82.8점에서 2021년엔 91.3점으로 높아졌고, 2022년에는 92.4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희 도시농업매니저

최은경 도시농업매니저

최윤정 관광농업팀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열린 또 다른 기회

시민들이 도시농업 매니저를 만나면서 힐링을 했다면, 도시농업 매니저들은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임희 매니저는 “힘든 시기에 화원을 했던 경험을 살려 도시농업을 배우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어요. 도시농업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제2의 인생이 시작됐고, 제가 선생님을 꿈꿨었는데 도시농업을 매개로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라며 신중년이 되어 다시 찾은 일자리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직업을 갖게 된 도시농업 매니저들의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효과에 관심이 많아진 임희 매니저는 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반영해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바이오대학을 통해 원예에 첫발을 들였다가 도시농업 매니저까지 하게 된 최은경 매니저는 IT기술을 익힌 청년들과 협업해 스마트팜이나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플랜테리어에 관한 창업도 고민 중이다.

최윤정 팀장은 “직업을 갖는 것과 직장을 갖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인턴십 등의 과정을 통해 직업을 갖는 거예요. 도시농업 매니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도시농업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라며 더 많은 신중년들이 새로운 길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주기업 고민 해결사
노무·안전의 '신중년 전문위원'

수행기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종덕 과장

2022년 산업재해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해사고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제조업이 모여 있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년 이슈가 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활용해 안전관리를 지원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종덕 과장

저희 회사 특성상 B2B 사업이 많은데,
중장년 직원이 지속적으로 거래처 관리를 도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주셔서 회사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입주기업 노무 분야
해결사 등장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중부권 최대의 산업단지인 청주산업단지 내 700여 입주사의 기반시설 관리, 법률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처럼 지방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경우 대부분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단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지난 2020년 많은 입주업체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작성,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무 관련 업무에 애를 먹고 있었다.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전문 노무담당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노무 컨설턴트 지원사업'이 있었고, 이종덕 청주산업단리공단 관리부 과장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해결사를 찾았다. 해결사는 바로 노무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전문위원 두 명이다.

이종덕 과장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수당 등 노무·인사와 관련된 법령은 매년 변화되는데 중소기업들은 노무사와 별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고 전문위원들이 노무 관련 자료 배포에서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노무 분야 전문위원 2명에 안전관리 분야 전문위원 1명도 새롭게 합류했다. 지방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청추산업단지에도 안전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안전관리 업무를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

노후 산단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 신중년 전문위원

과거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에서 30여 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전문위원은 공장등록 실태조사 시 현장 동행을 통해 입주업체 안전관리를 전담했다. 안전 관련 일지 작성 등 서류 점검부터 유해물질의 취급상태 확인 등 업체 스스로 챙기지 못한 빈틈을 꼼꼼히 채웠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활용해 안전관리 공백 지역으로 여겨지던 지방 일반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0여 년 전 청주지역 화학공장 사망사고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공헌했다.

안전관리 전공자와 실무 전담부서가 갖춰진 대기업과 달리 영세 공장들은 총무부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도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 안전관리 전문위원의 역할은 작은 공장일수록 클 수밖에 없었다. 안전관리분야 전문위원은 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입주업체 안전관리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도 느꼈다.

AI도 대체 못하는 안전, 신중년 전문위원이 있어 든든

전문위원은 안전사고 발생 후 관계 부서 등에서 점검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책임 및 대비책을 세우고, 각 회사에 안전문화 향상 프로젝트를 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주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기업 출신 안전관리 전문위원답게 현장의 다양한 경험은 물론 관계법령 등에 대한 숙지 능력도 탁월해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수혜 외에도 공단 내부 안전관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입주업체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만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안전전문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종덕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예상할 수 없는 산업공단 현장에서 나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 신중년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2023년 새해 목표는 ‘안전한 산업단지, 안전한 공단 만들기’다.

“지난 7월부터 일주일에 1~2차례씩 현장 방문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안전을 책임졌어요. 새해에는 안전전문요원과 함께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직접 베테랑을 찾아간 열정으로 빚어낸 마을 숲 그린 가드너

수행기관

거제시 장승포동주민센터

신세영 주무관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공간구조와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 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해야 할 정도로 녹색환경이 시대적 화두다. 특히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안전과 자연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경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특성상 곧바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기란 쉽지 않다. 거제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경녹지분야 베테랑을 찾아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안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신세영 주무관

마을 숲 그린 가드너 사업에 신중년이 참여하면서 5,600여 명의 장승포동 동민의 삶터가 환하게 바뀌고 있다.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
채용연계한 열정과 노력의 결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도시 녹화 분야의 전문성과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전문 직렬에 맞춰 이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1년 1월 거제시 장승포동주민센터로 발령받은 신세경 주무관은 도시녹화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력을 구하기로 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인구 24만 명의 거제시에서 신중년 나이 조건에 해당하며 조경·녹지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산업기능사 이상의 경력형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신 주무관은 "호기롭게 사업에 참여했지만, 대상자를 찾기 정말 힘들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인근 능포동의 양지암 장미공원에서 조경사로 일하는 분을 소개받고 해당 동주민센터로 달려갔어요. 다른 한 분도 시 산림녹지과와 일자리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함께하게 됐어요."라며 힘들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세영 주무관은 모집공고 후 신중년이 찾아오기를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간 덕분에 유능한 전문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신 주무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제도 애광원에서 20여 년간 조경사로 일했던 경력자와 10여 년간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를 맡았던 경력자가 장승포동 특화사업인 '신중년 마을 숲 그린 가드너' 사업에 채용돼 '반장'을 맡으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중년 전문성 살린
'마을 숲 그린 가드너사업'

이들은 새봄을 맞아 시가지 주변과 마전 버스정류장, 거제대학교 방향 옥림아파트 도로변 화분 등에 거제시농업개발원으로부터 지원받은 팬지와 데이지 2,500여 본을 심어 도심 곳곳에 싱그러운 봄기운을 불어 넣었다. 대로변에 설치된 100여 개의 화분에 넝쿨류인 한련화를 파종해 도심에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전문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초화류 조경, 공공녹지대 수목 관리에서 신중년 경력형 베테랑들의 능력이 빛을 발하면서 도시는 점점 쾌적한 환경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높은 나무에 올라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보호수를 관리하는 업무 역시 두 반장의 몫이었다. 나무와 녹지 관리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도시의 녹색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할 때도 장승포동 웰빙해안둘레길부터 일운면까지 등산로 주변 나무 도복 등의 시설 피해 복구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폭우와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산림녹지과 도로보수원이 시 전체를 맡다 보니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단점 역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유의 경험과 기동성을 살려 당일 현장 처리는 물론 신속한 문제 해결로 재난 관리력과 민원 만족도를 동시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신중년과 적극 행정이 만나
지역주민이 행복한 거제시

장승포동은 지난 2021년 처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활용한 마을 숲 그리너 사업에 참여한 뒤 2년 연속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참여자들은 경력에 비해 보수는 적은 편이지만 일에 흥미와 애정을 느끼고 있다. 신세경 주무관 역시 신중년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행정 분야로 끌어들여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행정의 최전방에서 조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된 미래를 만들 수 있어 뿌듯했어요.”

마을 숲 그린 가드너 사업에 신중년이 참여하면서 5,600여 명의 장승포동 동민의 삶터가 환하게 바뀌고 있다.

국세청 출신 등 신중년 3총사
세무·회계, 노무, 인사 답답함 해소

수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심효명 팀장

국세청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퇴직 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터를 찾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에서 노무 상담사, 회계 상담사로 다시 뛰는 이들을 만났다.

심효명 팀장

노무, 인사, 회계…
기업과 근로자 모두 큰 호응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은 이미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마다 많은 신중년들의 일터가 되고 있다. 인천 유일의 무료 장난감 수리점인 '키니스장난감병원' 운영을 비롯해 '오피스가드닝',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 등의 다양한 사업도 진행한다.

2018년부터 인천시와 퇴직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꾸준히 중장년을 채용해왔던 일터와 사람들은 올해 노무·회계 상담으로 눈길을 돌렸다. 인천지역 내 신생 창업기업, 비영리법인 등에게 높은 벽인 전문지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심효명 팀장은 "노무, 세무·회계, 인사,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표는 물론 인사담당자,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는 과거 근로감독관으로 일했던 국세청 출신 퇴직 인사 등 총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법, 세금 납부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 30시간, 비록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상담을 했지만 삼총사의 열정은 마치 신입사원처럼 뜨거웠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납세 주제를 교육자료로 만들어 38명이 참여한 경력형 일자리사업 직무통합 특강을 진행했다. 뜨겁게 준비한 만큼 강의실 열기도 후끈했다.

'고인물' 되지 않으려
끊임없이 공부

3인 1조로 구성된 이들은 또한 상담팀을 꾸려 인천지역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주변을 발로 뛰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알게 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무, 세무·회계, 인사 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상담해 주면서 그들의 희망의 끈이 된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일터와 사람들은 3명의 상담팀을 구성하면서 비즈니스 상황에 따른 매너의 기본에서부터 직장 예절,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응대 기법을 교육하는 등 성공적 비즈니스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원정책, 세법 등을 공부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도 인상적이다. 한 참가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상담사 교육을 받아 새로운 상담의 길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심 팀장은 "5인 미만 청년기업이었는데, 처음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사회보험료 산정 요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중년 담당자가 시기마다 신고해야 할 사항, 어려운 회계 용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전화나 이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

여 청년기업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고 신중년 삼총사의 활동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신중년 일자리 담당자의 관심이 성패 좌우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7개월간 총 34개 사업장을 방문했고, 5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 및 대면으로 진행된 '2022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서도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구직을 원하는 60여 명과 상담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부터 실행·사후관리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일터와 사람들의 공이 크다.

심효명 팀장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전국단위 공유회 개최 등으로 각 지역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베끼는 경쟁 구도가 아닌 서로서로 상호 보완하여 더 재미있는 일자리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담당자의 관심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유회를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한 마디로 '디딤돌'이라고 표현했다. 사업 참여자가 이 사업을 디딤돌로 삼아 인생 2모작을 계획하고 향후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다.

일터와 사람들이 배출한 신중년 인력들은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협동조합 사무실을 찾을 정도로 조합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말처럼 이번 사업에 참여한 이들 역시 겨울을 지나 새로운 인생의 봄을 준비하고 있다.

공교육 빈틈을 메워준
신중년 '촘촘보조교사'

수행기관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조순일 이사장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 시스템을 바꾼 코로나19. 특히 아이들 교육과 돌봄은 큰 혼란을 겪었다. 비대면 학습으로 인해 교육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특히 학습 부진아와 경계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진 가정은 학습과 돌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20~2021년 파주시 지원으로 운영하던 촘촘보조교사는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학습부진아 등
교육격차 해소 앞장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개개인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촘촘보조교사'를 2020년부터 유치원 및 학교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촘촘보조교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학급의 학습 부진아, 경계성 장애아 등을 대상으로 1:1 돌봄을 제공해 공교육의 '빈틈을 촘촘히 메우는 보조교사'다.

조순일 이사장은 "장애로 판정받지는 않았지만, 경계선에 있는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촘촘보조교사가 그런 학생들에게 1:1 교육과 돌봄을 전담하면서 담임선생님은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학습분위기가 향상돼요."라고 말했다.

촘촘보조교사들은 학교 요청에 따라 오전에 등교 지도, 교실 돌봄, 배식 지도를 한다. 이들은 또 오후에 2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인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 교실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 이곳은 여러 학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존 1인 돌봄교사만으로는 세밀하게 아이들을 챙기기 어려웠다. 그 빈틈을 촘촘보조교사가 해결했고 호응은 높아졌다.

다시 사회 속으로 나온
경력단절여성

공교육의 빈틈을 메워주는 촘촘보조교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신중년'이기 때문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은 단절됐지만, 육아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에 누구보다 촘촘보조교사에 적격이었다.

"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50~69세 경력단절여성을 촘촘보조교사로 채용하고 있어요."라고 말한 조 이사장은 "경력이 단절된 동안 변화한 학교의 시스템, 아이들의 특성 등에 대한 양성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한 뒤 파견하고 있어요. 또 매주 수요일 2시간씩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처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져 촘촘보조교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2020~2021년 파주시 지원으로 운영하던 촘촘보조교사는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신중년'

현재 5명의 촘촘보조교사가 각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성향이 있어 수업시간에 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던 아이가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게 됐으며, 친구들을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업시간에도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던 아이도 촘촘보조교사 덕분에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도 촘촘보조교사를 요청해서 수학전공 보조교사가 학교에 가서 학습부진아, 수포자(수학포기자) 등에게 기초부터 알려주면서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례도 있어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변화하면서 학교,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들도 반응이 뜨겁다. 촘촘보조교사를 우리 학교에도 파견해달라는 전화 문의가 파주시청과 교육청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

"처음에는 촘촘보조교사가 교실에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했던 교사들도 여름방학이 지난 뒤 아이들이 변하고 수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우리 반에 들어오길 바라게 됐어요. 그래서 전엔 오전 내내 한 교실에 있었다면 현재는 시간별로 다른 반에 들어가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라며 조 이사장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촘촘보조교사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면서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촘촘보조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촘촘보조교사를 더 많은 학교에 파견하기 위해 2023년에는 10명으로 확충하고,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아동돌봄기관에도 파견할 계획이다.

부산 최초 '대체 조리사'
신중년이 나섰다

수행기관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재경 팀장

부산시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초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어린이집 조리사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육 만족도까지 높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재경 팀장

“대체 조리사 지원 만족” 99.6%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를 비롯해 조리사, 차량기사, 미화원 등 다양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직원의 연차, 경조사, 병가 등으로 업무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전까지 대체 인력 지원은 보육교사에 한정돼 있었고 다른 직군 인력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어린이집 조리사의 경우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위생 등을 지원하는 핵심 직군임에도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4월부터 부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초로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재경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은 “2018년 4~10월 실시한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99.6% 나왔을 정도로 어린이집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올해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근로자의 휴가와 건강권을 보장하고 신중년 인력풀을 활용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라고 전했다.

검증된 경력으로 보육의 질 향상

올해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선발한 신중년 대체 조리 인력은 총 5명.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물론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정규직 조리사다. 이들은 연차, 병가, 코로나19 감염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주방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조리사로 현장에 투입돼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그동안 대체 인력이 1명뿐이라 같은 날 동시에 여러 어린이집이 인력을 요청할 경우 지원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연제구 내 어린이집에 국한되었던 대체 인력의 거주 지역 범위를 동래구 등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많은 어린이집의 호응을 받았다.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 인력이 어떤 환경의 어린이집에 지원되더라도 다른 조리사의 도움 없이 핵심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채용 후 일주일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을 이수한 뒤 2주차에 어린이집으로 파견돼 기존 조리사와 함께 실습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중년 투입 이후
9배 성과

2018년 단 1명으로 시작한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은 5명의 신중년이 활동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18년 64건에 불과했던 지원 실적은 2020년 3~10월 기준 550건으로 3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그만큼 지역 어린이집의 요구가 많았던 부분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대응하면서 부산 지역 타 구청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 조리사들의 기본 근무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고, 3주간 기본근무 및 1주간 대기주간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조리사 부재 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신중년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라고 말한 이재경 팀장은 “이들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인원 감축으로 현장을 떠나거나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을 한 경우 등 장기간 일터에서 물러나 있다가 재취업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또 다른 장점을 강조했다.

작가들의 아트
신중년의 하트

활동처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

지미정 대표

가죽, 뜨개질, 도자기, 압화 등 다양한 공예품을 통해 고양시를 알리고 있는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 아름다운 공예가 상품이 되어 소비자의 손에 닿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했다. 협동조합 운영도 일반 기업처럼 경영의 노하우 없이는 지속하기 힘든 것은 엄연한 사실. 공식적인 서류 작성부터 마케팅 등 관련 전문가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에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밤하늘의 한 줄기 빛이었다.

지미정 대표

공예작가 모임에서 협동조합으로
그리고 다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010년 만들어진 비영리단체 고양아트마켓운영협의회는 고양시에서 활동하던 미술과 공예작가들이 고양문화재단에서 만나면서 만들어졌다. 평소에는 각자 공방을 운영하거나 작품 활동과 강의 등을 하다가 고양시에서 행사가 열릴 때면 모여 공예체험방을 함께 운영하고 문화예술 소외계층과 장애우 대상 교육봉사를 했다.

2018년 협의회는 고양시 제안으로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며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지미정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 대표는 "저희가 고양시에서 15년 정도 활동하다보니 고양시에서 행사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행주문화제 등에서 고양고양이 인형 만들기, 바디페인팅 등 고양시와 관련된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요."라며 10년 전 홀트일산복지타운과 MOU를 체결한 이후 장애인 대상 재능기부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은 또 고양시 특징을 살린 공예품으로 시 이미지를 대외에 알려 2020년 '관광두레'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예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공동브랜드인 '꽃소니'를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돌파구가 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협동조합이 되기까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공예작가로서 예술활동 기반은 탄탄해진 반면, 활동영역이 확장되면서 어려움도 뒤따랐다. 공예만 알던 그들에게 사업 기획, 판로 확장 등 경영분야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한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에게 나타난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는 어두운 밤에 길을 안내하는 별처럼 특별한 제안을 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디자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신중년을 연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모두 각자 분야에서는 최고의 작가이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류, 사무, 경영에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에게 맞는 인력을 찾고 있었는데, 딱 맞는 인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좋은 기회를 통해 디자인 전공자로 일러스트 작업이 가능하고 경영까지 가능한 신중년을 배치 받게 된 거죠."

지 대표가 말한 신중년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단 일원으로 관련 사업 경영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신중년이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걱정했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공동브랜드 '꽃소니' 제품의 친환경 패키징을 함께 개발하고 디자인했을 뿐 아니라 판매가 가능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공예를 접할 수 있었고,
큼직한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하도록 상품설명서도 디자인했다. 지 대표가 기획을 하면 신중년이 디자인으로 구현하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문화예술 교육서비스사업, 공예체험부스 준비 등 손발을 맞추며 성과를 올렸다. “저희한테는 직원이 아니에요. 가족 같은 존재예요.”

신중년과 짧은 만남
너무 아쉬워

풍부한 경력의 신중년이 투입되면서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낸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어려워했던 서류 준비를 척척 해낸 덕분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취약지구 벽화사업’에 선정됐다. 고양시 특징을 살려 벽화 디자인을 신중년의 도움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끝마치자,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벽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자고 제시해 상호 MOU까지 체결했다.

고양아트마켓협동조합과 인연을 맺은 신중년도 일자리와 더불어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공예를 접할 수 있었고, 큼직한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시너지는 아쉽게도 2022년 12월까지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 익숙해지고 손이 맞아가는 시기인데 끝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기업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수익이 미미해서 어려워요.”라고 말한 지미정 대표는 기업의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2~3년 정도 더 지원해주길 원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을 살려

세상으로 나온 신중년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together

with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우수사례집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 나영돈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총괄·제작 : 지은정
취재·편집디자인 : 디가온
인쇄 : 디자인재미(주)
ISBN 978-89-6331-000-8

※ 이 책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없이 전재와 역재를 할 수 없습니다.

together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우수사례집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비매품/무료
93330
9 788963 310008
ISBN 978-89-6331-000-8